

##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조사방법에 관한 소고

김민경\*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상상태접근법과 현재상태접근법(노동력접근법)의 두가지 만이 있으며, 평상상태접근법을 종전의 유업자접근법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이는 유업자접근법에서 유업자를 평상 일을 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업자와 무업자로만 인구를 구분하고 있는 유업자접근법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 파악이 불가능하고, 조사자·피조사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1940년에 노동력접근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접근방법이 1947년 ILO의 공식 접근방법으로 권고된 뒤 많은 국가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ILO는 1982년에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종전 유업자접근법과 달리 1년간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접근법(현재상태접근법), 평상상태접근법, 유업자접근법의 3가지가 있다.

본고는 이들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또 이들 접근법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근래 산업구조가 근대화되어 농업과 같은 계절성이 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아주 낮고, 또한 1년 동안의 활동과 특징기간 동안 활동이 서로 다른 인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인구이동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조사에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접근법을 그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로는 총조사의 결과가 각종 표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벤치마크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 통계청 통계기준과장

## 1. 서언

한 나라의 경제력은 인적·물적자원에 따라 결정된다. 이중 인적자원은 주로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활동인구 관련통계는 노동수급 등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 왔다.

가구조사를 통하여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즉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주최한 1947년 제6차 국제노동통계가회의에서 의결한 현재상태접근법(Current Status Approach) 또는 노동력접근법(Labor Force Approach)과 1982년 제13차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소개된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이 있으며, 또한 노동력 접근법이 의결되기 이전인 1938년 국제연맹통계위원회가 제안한 유업자접근법(Gainful Worker Approach)이 있다. 물론, 모든 조사가 이들 접근방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목적에 맞게 이들 접근방법을 변형하여 적용하는 조사가 있으며, 또한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조사도 있다.

통계자료를 정책수립 또는 다른 목적에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료 수집단계에서 적용된 접근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들이 서로 다른 조사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책수립 등에 이용하였을 경우, 그 결과는 결코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또 이들 접근법을 실제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2. 경제활동상태 접근방법간 차이

### 1) 조사대상

국제표준정의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일정한 기간동안(reference period)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라 함은 시장판매, 물물교환, 자가소비 등 생산의 목적과 관계없이 최초의 생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상태조사는 전인구를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일부 인구를 제외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연령기준을 들 수 있다. 연령기준은 경제활동상태의 조사방법에 따라 구별짓기 보다는 각 국의 법령, 제도, 관습,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 특정연령 이하의 인구는 육체적으로 노동능력이 없거나 의무교육, 법령 등에 따라 노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상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일부국가에서는 조사비용 또는 조사의 용이성 등 조사기술상 이유를 들어 특정 연령층 이상의 인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소년소녀의 노동에 관심이 있는 국가에서는 일정연령 이하의 인구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상태 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령기준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14세 또는 15세 최저연령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주 낮은 연령기준을 채택하거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연령기준을 채택하고 있다(〈표1〉 참조). UN은 인구센서스에서 15세 최저연령기준을 채택하되 농업국은 산업국가보다 더 낮은 연령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3년부터 표본조사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에서 처음에 14세 최저연령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상회하고 14세 연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극히 낮아져, 1987년부터는 15세 최저연령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서는 1960년부터 1980년 조사까지는 14세 최저연령기준을, 그리고 이후 조사에서는 15세 최저연령기준을 채택하고 있다.<sup>1)</sup>

〈표1〉 주요국의 경제활동상태의 최저 연령기준

국가	최저연령(세)	국가	최저연령(세)
미국	16	인도	5와 15
스웨덴	16	베네수엘라	10과 15
이집트	6	캐나다	14와 15
브라질	10	한국	15

일부국가에서는 일정 연령층 이상의 인구를 경제활동상태의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74세 최고연령기준을 그리고 이집트, 말레이시아, 멕시코가 65세 최고연령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연령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밖에 경제활동상태 조사대상에서 군인과 기숙사, 형무소, 병원 등 시설(institutions) 거주인구, 외국인, 배회자 등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접근방법과 관계없이 군인(전투경찰 포함), 교도소 수감자, 유학생, 외국인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2) 조사대상기간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접근방법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조사대상기간이다. 그 이유로는 조사대상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구조(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률,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의 분포 등)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력접근법에서는 1일 또는 1주일과 같이 짧은 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하여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함으로써, 현재의 실업과 취업상태 및 취업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접근법은 비교적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기억오차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이동 또는 활동상태의 변경에 따른 통계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력접근법에서도 1일 또는 1주일 기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조사대상기간을 선택할 때에는 측정의 실용성과 다

1) 우리 나라는 1925년 이래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여 왔는데, 경제활동상태는 1960년 총조사부터 표본조사방법으로 파악해 왔다.

른 자료와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적이고 주로 일하는(full-time)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1일' 기준보다 '1주일'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주일 중 어느 하루를 조사대상기간으로 취하여도 평균적으로 거의 동일한 조사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주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채택함으로써 조사결과의 분산(variance)을 좀더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일시적이고 틈틈이 일하는(part time)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1일'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취업과 실업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우리 나라는 주에 36시간 일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93% 이상으로, '1주일'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하겠다.

평상상태접근법에서는 긴 조사대상기간(보통 1년)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농업, 건설, 관광 등과 같이 계절성이 강한 경제활동이 주가 되거나 또는 일년 동안의 활동상태와 특정기간 동안의 활동상태가 서로 다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주된 활동 이외에 부차적인 활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소득, 생산, 지출, 이동 등과 관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좀더 긴 기간(통상 1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기억오차가 심하게 나타나,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평상상태접근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사대상기간은 고정대상기간(fixed reference period)과 이동대상기간(moving reference period)으로 구별된다. 고정대상기간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같이 일정하게 고정된 기간을 채택하며, 이동대상기간에서는 '조사기준시점 이전 1년' 등과 같이 조사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조사대상기간을 채택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11월 1일 조사기준시점 이전 1년의 이동대상기간을 채택한 바 있다.

유업자접근법에서는 조사대상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으며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또는 일자리를 찾았는지에 관계없이 직업, 수입있는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자를 유업자(gainfully occupied population)로 본다. 이 접근법은 취업에 관한 우연적 또는 계절적 요소를 제거하고, 광범위한 잠재 노동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력접근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접근법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일을 하여 왔으나 퇴직한 자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새로이 노동력에

진입하는 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업자 파악이 불가능하며, 수입있는 일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응답자 또는 조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1930년대 이전에는 유업자접근법에 따라 유업자만을 파악하여 왔으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유업자접근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미국의 경우 1940년 경제활동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와 인구센서스부터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였다. 현재는 선진국 중 일본이 5년 주기의 '취업구조 기본조사'에 채택하는 것 말고는 유업자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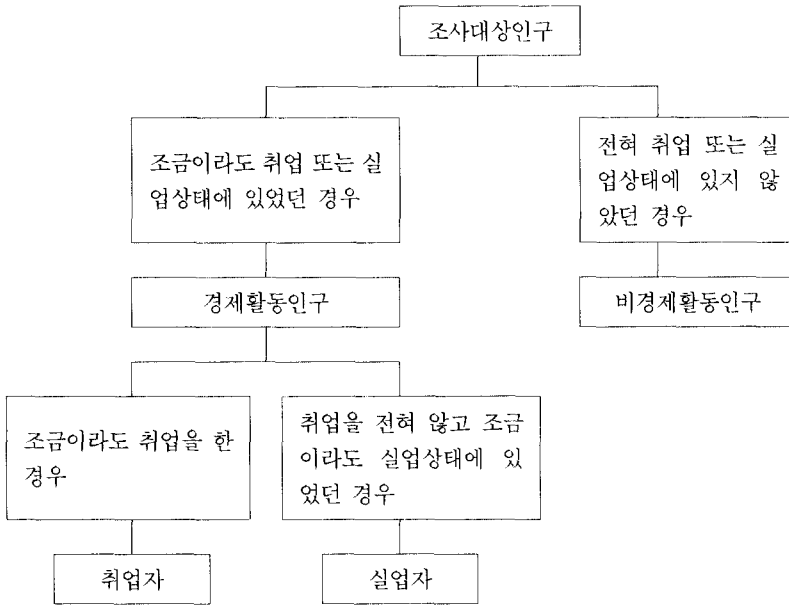
### 3) 경제활동인구의 분류기준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로 행한 활동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력접근법에서는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정연령 이상의 인구를 노동력인구와 비노동력인구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동력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고 있다. 1983년 ILO가 주최한 제14차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자에는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임금이나 봉급을 위하여 일한 자, 정형적인 일을 하여 왔으나 잠시 일을 그만 둔 상태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된다. 그 밖에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수익을 위하여 또는 가족의 수입을 위하여 일하거나, 자기 사업을 갖고 있으나 잠시 일을 하지 않은 자명자도 포함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1) 일거리가 없고(without work), 2) 일을 찾았으나(seeking work), 3) 일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currently available for work)의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거리를 이미 찾았으나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그 일을 하기로 되어 있어 일을 하지 않고 또 일거리를 찾지 않은 자도 실업자에 포함된다. 1982년 제13차 국제노동통계회의에서는 일을 찾는 수단이 한정된 경우에는 위 세 가지 기준중 2)의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

비노동력인구(또는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수입을 위하여 가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히 가사만을 돌보는 자, 학생, 재산수입, 투자배당금, 연금 등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의 세 가지 활동상태 중 어느 특정한 활동상태가 조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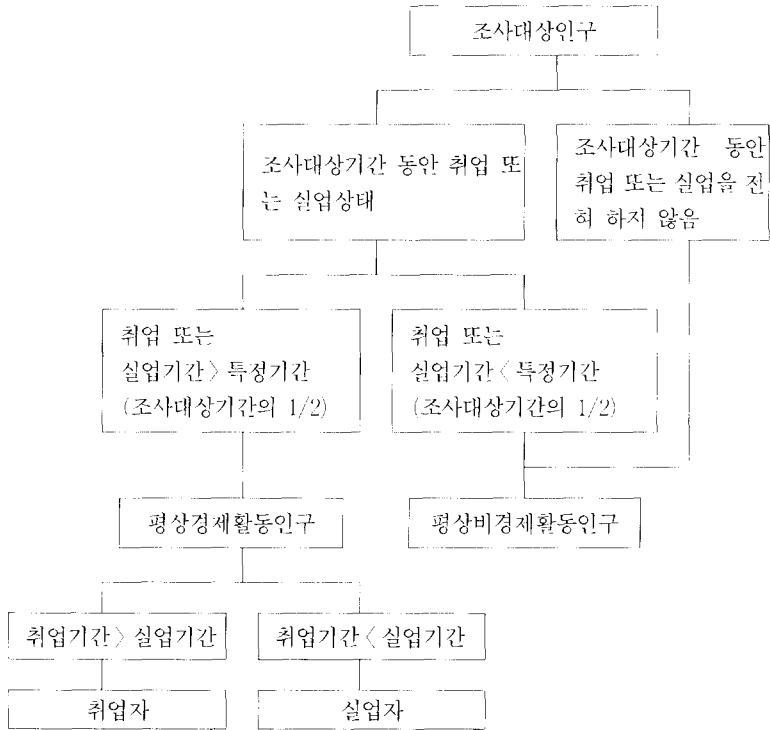


〈그림1〉 노동력접근법의 경제활동상태 분류 체계

상기간 동안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다면,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분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조사에서는 어느 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가 두 가지 이상이 될 수 있어 분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수 있다. ILO는 노동력접근법에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순의 '우선순위 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수입액, 활동시간 등과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취업을 하였으면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자로 분류하며, 취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조금이라도 실업상태에 있었으면 실업자로 분류하게 된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취업 또는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만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활동시간이나 수입액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조사에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들 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노동력접근법과 같이 평상상태접근법에서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자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다(〈그림2〉). 그러나 노동력접근법과는 달리 평상상태접근법에서 조사대상자의 활동상태는 조사대상기



〈그림2〉 평상상태접근법의 경제활동상태 분류체계

간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활동상태이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기간이 52주(1년)라고 할 때 조사대상자가 26주 이상을 취업하였으면 취업자가 되고, 동일한 논리로 26주 이상을 실업상태로 보냈으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26주 이상의 활동상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활동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활동상태를 조사대상자의 활동상태로 정하게 된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일'(H) 또는 '주'(週)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실제로 일한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휴가, 연가, 공휴일 등 일시 부재기간도 포함하여야 한다.

유업자접근법에서는 조사대상기간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업자와 무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수입있는 일에 종사한 사람에는 현금 또는 현물 수입을 위하여 일한 자와 또는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업, 거래 등을 하고 있는 자들이



포함된다.

노동력접근방법이 유업자접근방법에 비해 취업자를 좀더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이유로는 통상 일하고 있지 않으나 조사기간중에 틈틈이 일한 자와 조사기간중(또는 이전)에 일하고 있었으나 조사기간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자를 취업자로 조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업자접근방법이 취업자(유업자)를 좀더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이유로는 통상 일하고 있었으나 조사기간중에 일하지 않은 자와 조사기간중(및 이전)은 일하지 않았으나 조사기간 이후 통상 일하는 자를 유업자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상태 접근법간에 조사대상기간과 경제활동상태의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인구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상 차이점 때문에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적용한 조사의 결과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3. 경제활동상태 접근방법의 적용과 그 결과

#### 1) 경제활동 관련조사의 특징

우리 나라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대표적인 것은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구조통계조사와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가 있다. 이들 조사는 우리 나라 인구의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조사의 목적, 주기, 접근방법 등에서 서로 다르다. 이 중에서 고용구조통계조사는 표본규모가 크고 조사항목이 많아 지역별 자료생산이 가능하고 노동력 유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조사기준, 조사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조사방법으로 매월 실시되는 경상조사로서 표본조사지역내 약 33,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 접근방법으로는 노동력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고 있다.

〈표2〉 역대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제활동상태 접근법

연도	조사규모	경제활동상태 접근방법 (조사대상기간)
1960	전가구의 20%	노동력접근법 (1주간)
1966	전가구의 10%	노동력접근법 (1주간)
1970	전가구의 10%	노동력접근법 (1주간)
1975	전가구의 5%	노동력접근법 (1주간)
1980	전가구의 15%	노동력접근법 (1주간)
1985	전가구	유업자접근법 (없음)
1990	전가구의 10%	평상상태접근법의 변형 (1년)
1995	전가구의 10%	_____ (1개월)

1925년 이래 5년마다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해 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노동력접근법을 일관되게 적용해 온 것과 달리, 인구주택총조사는 최근에 접근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왔다(〈표2〉). 1960년 조사부터 1980년 조사까지는 매 조사에서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여 왔으나, 1985년 조사에서는 유업자접근법을 채택하여 조사대상기간을 두지 않고 조사대상자가 주로 하는 일의 직업과 산업만을 조사하였으며, 1990년 조사에서는 변형된 평상상태접근법을 적용하여 1년 동안 총 30일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1995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기간 1개월중 15일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파악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장기간 동안 훈련되고 조사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조사가원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20개 항목을 조사하여 취업과 실업에 관한 심층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각종 고용지표와 산업·직업자료는 고용의 변동추이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등 각종 고용정책의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임시로 모집한 비전문조사원이 경제활동상태,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등 4가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 나라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와 주택에 관한 다른 조사항목과 연결하여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대규모 조사로서 경제활동에 관한 여러 특성들을 소지역별, 사회·경제 계층별로 파악이 가능하며, 산업과 직업을 소분류까지도 세분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그 결과는 다른 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해 주는 기준(bench mark)이 되며,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서 활용된다.

〈표3〉 1990 인구주택 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특징 비교

조사 주기	조사대상 가구규모	경제활동 관련 조사항목	조사원	조사목적
인구주택 총조사	5년 약 110만 가구	4개*	임시조사원	· 경제활동인구 파악 · 표본조사의 모집단 · 각종 조사의 bench mark · 타항목과 연계분석
경제활동인 구조사	1개월 약 3,300 가구	20개**	전문조사원 (통계청직원)	· 노동력의 특성별 변동추이 파악

\* 경제활동상태, 직업, 산업, 종사상의 지위

\*\*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및 이유, 일주간의 구직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취업의 사유무, 취업시간, 평상시 취업시간, 추가취업 및 전직 희망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전직유무 및 실업동기, 원하는 일의 형태, 비구직 이유, 6개월간 구직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종업원 규모, 소득

## 2) 경제활동상태 접근법의 적용결과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한 두 조사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두 조사의 조사규모, 조사원의 질, 표본설계, 조사주기, 조사항목의 수와 종류, 조사표 설계, 접근방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요인 중 접근방법이 조사의 내적 요인이라면, 다른 여러 요인들은 조사의 표본오차 및 비표본오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사의 외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조사결과로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수는 내적·외적 요인 모두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의 분포는 주로 내적 요인인 접근방법에 영향받는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평상상태접근법을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조사대상기간으로는 평상상태접근법에서 취하고 있는 조사기준시점 이전 1년을 정하였으나 경제활동상태의 분류방법으로는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조사대상기간(1년) 중 30일 이상 수입있는 일을 한 경우에는 취업자로, 수입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일거리를 찾은 자를 실업자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90년 총조사 결과로부터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정확한 분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 그러나 두 접근법에

따른 조사결과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총조사 결과를 <표4>와 <표5>에서 비교하였다.

<표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75년과 '80년 경우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파악된 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경제활동인구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90년 이전에는 역대적으로 총조사의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모집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추계인구보다 적은 점을 감안할 때<sup>2)</sup>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파악된 경제활동인구는 좀더 많이 조사된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적게 파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총조사인구가 추계인구보다 많은 1990년도에는 총조사의 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인구보다 적어,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상당히 적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조사간 외적 요인이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함을 전제할 때, 두 조사간 경제활동인구 차이가 시계열상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이유는 각 조사에 적용된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될 수 있다. 즉 평상상태접근법은 조사대상기간과 경제활동의 분류기준의 특정상 경제활동인구가 적게 조사된 것이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80년 경우 두 조사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90년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두 조사의 조사대상기간, 조사방법의 차이에도 있겠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조사전문요원의 정밀한 조사임을 감안하면, '90년 총조사에서 채택한 평상상태접근법에 따라서는 실업자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90년 총조사의 구직자비율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률보다 아주 높게 나타난 것은 총조사에서 취업자는 적게 조사되고 구직자는 많이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평상상태접근법에서는 1년중 절반인 26주 이상을 취업했거나, 26주 이상 계속된 활동이 없는 경우 그 중 많은 시간을 취업자로 있었다면 취업자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90년 총조사에서는 30일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파악하였는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보다 233만명이 적게 조사되었다.

2) 1990년 이전의 총조사에서는 인구의 누락이 중복보다 많았기 때문에 인구를 추계할 때 이러한 과소조사를 보정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에 '추계인구' 총조사인구였으나, 1990년 총조사에서는 인구의 중복이 누락보다 많아 인구추계에 이를 보정함에 따라 '추계인구' 총조사인구가 되었다.

〈표4〉 인구주택 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간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비교

(단위: 1,000명, %)

연도	경제활동인구(참가율)			실업자(율)·구직자(율)		
	총조사	경활조사	차이	총조사	경활조사	차이
1970	10,378 (54.8)	10,940 (62.2)	△562 (△7.4)	225 (2.2)	394 (3.6)	△169 (△1.4)
1975	13,351 (61.2)	12,869 (61.4)	482 (△0.2)	669 (5.0)	413 (3.2)	256 (1.8)
1980	13,595 (54.7)	12,679 (51.3)	916 (3.4)	913 (6.7)	803 (6.3)	110 (0.4)
1990	16,907 (53.6)	18,539 (60.0)	△1,632 (△6.4)	1,156 (6.8)	454 (2.4)	702 (4.0)

주: · 1985년 총조사에서는 일하는 자의 산업과 직업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두 조사간 비교가 불가능함.

· 경활조사의 1970년과 1975년은 9월, 1980년은 12월, 1990년은 연평균 수치임.

1)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구직자

2) 구직자임.

3) 구직자율 = 구직자 / (취업자 + 구직자) × 100

자료: 〈각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의 분포를 살펴보면(〈표5〉),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은 '90 총조사에서 20.8%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7.9%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총조사에서 19.3%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1.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90 총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이 1년(평상상태접근법)으로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이 포착될 수 있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조사대상기간이 1주일(노동력접근법)로 이 기간동안 농림어업부문의 종사자가 적기 때문이다. 두 조사의 직업별 취업구조(〈표5〉)를 비교하여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무관련직,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총조사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직종의 취업자 비율은 총조사에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업의 유동성과 조사대상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높은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관련직의 종사자가 장기간 조사대상기간에서 적게 조사된 반면, 단기간 조사대

〈표5〉 인구주택 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간 취업구조 비교(1990)

(단위: 1,000명, %)

	인구주택총조사(A)		경제활동인구조사(B)		차이(A-B)	
	취업자	(%)	취업자	(%)	취업자	(%)
〈산업〉	15,751	(100.0)	18,085	(100.0)	△2,334	( - )
농림어업	3,282	( 20.8)	3,237	( 17.9)	44	( 2.9)
광공업	4,383	( 27.8)	4,990	( 27.6)	△607	( 0.2)
건설업	1,119	( 7.1)	1,346	( 7.4)	△227	(△0.3)
도소매업	3,037	( 19.3)	3,935	( 21.8)	△898	(△2.5)
기타	3,931	( 25.0)	4,576	( 25.3)	△645	(△0.3)
〈직업〉						
전문기술행정관 리직	1,499	( 9.5)	1,575	( 8.7)	△76	( 0.8)
사무관련직	2,412	( 15.3)	2,352	( 13.0)	60	( 2.3)
판매직	2,187	( 13.9)	2,627	( 14.5)	△440	(△0.6)
서비스직	1,373	( 8.7)	2,018	( 11.2)	△645	(△2.5)
농림어업직	3,248	( 20.6)	3,216	( 17.8)	32	(△2.8)
생산기타직	4,955	( 31.5)	6,298	( 34.8)	△1,343	(△3.3)
분류불능	77	( 0.5)	-	( - )	-	( - )
〈종사상 지위〉						
자영업주	4,663	( 29.6)	5,068	( 28.0)	△405	( 1.6)
가족종사자	1,677	( 10.7)	2,067	( 11.4)	△390	(△0.7)
피고용자	9,411	( 59.7)	10,950	( 60.6)	△1,539	(△0.9)

상기간에서는 많이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구조도 두 조사간 다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장기간 조사에서 자영업주 포착이 다소 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결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인구 총조사에 경제활동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국가는 총조사마다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접근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계열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주택 총조사마다 서로 다른 경제활동상태 접근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시계열분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료이용에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세 가지 접근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사회과학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이들 세 가지 접근방법은 각기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기계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조사의 목적과 배경 및 국가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좀더 현명하다 하겠다.

근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근대화되어 농업과 같은 계절성이 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아주 낮고, 또한 1년 동안의 활동과 특정기간 동안 활동이 서로 다른 인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인구가동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조사에는 조사대상을 1주간으로 하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접근법으로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해야 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표본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모집단은 바로 인구주택 총조사이므로, 두 조사의 경제활동상태 접근방법이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접근법을 그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채택함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총조사의 결과가 각종 표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벤치마크(bench mark)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에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외국과 국제 비교하기도 쉽다.

상황적인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의 기술적인 견지에서도 노동력접근법의 채택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접근법과 달리 노동력접근법은 아주 짧은 조사대상기간을 채택함으로써 조사가 쉽고 또 그 만큼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달리, 유업자접근법이나 평상상태접근법은 조사대상기간이 없거나 긴 조사대상기간을 채택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산업, 직업 등의 변동이 발생하고 또 응답자의 기억오차가 심하여 조사가 어렵고 또한

조사결과의 신뢰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항목을 동시에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데, 1년간 조사대상기간을 적용하는 평상상태접근법을 채택할 경우에 기억오차가 심하게 발생하여 조사결과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평상상태접근법의 장점 중의 하나가 소득항목을 동시에 조사하여 소득의 원천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소득조사가 극히 어려워서(90년 총조사에서는 개인의 취업활동별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였으나 신뢰성이 낮아 미공표됨) 평상상태접근방법을 채택한 이유로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구나 올바른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해서 1년 동안의 각 취업활동, 실업, 비경제활동상태를 모두 조사하여 그 기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사실상 곤란하다. 취업자의 산업·직업 등의 분류를 위해서도 각 취업내용에 대한 기간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 파악을 위하여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했을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는 있다. 통계조사에서 오차는 표본조사에서 오는 표본오차와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로 나누어지는데, 인구주택 총조사는 그 규모가 큰 조사로서 비표본오차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조사로서 표본오차는 발생하나 비표본오차가 아주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사간 조사오차 정도의 차이 때문에 두 조사의 조사결과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의 추이에서 나타났듯이, 두 조사가 동일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였을 때가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하였을 때보다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력접근법을 두 조사에 동일하게 적용한 1980년을 보면 두 조사간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상당히 근접함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였을 때 조사결과간 차이는 순수히 조사오차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면,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조사오차 차이와 접근방법의 차이가 서로 결합되어 조사결과간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두 조사간 실업률의 차이가 있어 이용할 때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인구주택 총조사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실업률 추정이 주목적이 아니고, 전반적인 고용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특히 취업자를 다른 조사항목과 연계하여 분석하며 또한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하는 좀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총조사에 평상상태접근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두 조사간에 실업



자수보다는 오히려 취업자수의 차이가 더 크고 심각하다.

통계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사결과를 여러 목적에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노동력접근법을 계속 채택하여 오다가, 최근 조사에서 그 접근법을 변경 적용함으로써 고용상태의 추이 또는 변화의 파악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통계조사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기본사업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부적합하고 조사기술상 어려움이 많은 평상상태접근법 또는 유업자접근법을 채택하기보다는 노동력접근법을 총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3), <1970 총인구 및 주택 조사 보고>, 제2권, 10% 표본조사, 4-1 경제활동.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78), <1975 총인구 및 주택 조사 보고>, 제2권, 15% 표본조사, 3-1 경제활동.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2), <1980 총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2권, 15% 표본조사, 3-1 경제활동.
- 박래영·송위섭(1989),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의한 노동력 인구의 특성 분석>.
- 통계청(1995),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 통계청(1994), <1990 경제활동인구 연보>.
- 통계청(1992), <199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제6권 경제활동, 1992.
- Bastelaer, Alois Van(1994), "Difference in the Measurement of Employment in the Labour Force Surveys in the European Community",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10(3): 277-305.
- Census Bureau, USA(1994), *Current Population Survey Interview Manual*.
- Hussmanns, R., F. Mehran and V. Verma(1990), *Survey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n ILO Manual on Concepts and Methods*, ILO, Geneva.
- UN(1990), *Supplementary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s and Housing Censuses*,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67/Add. New York.

abstract

---

## **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on Survey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Min-Kyung Kim

There are basically three approaches of surveys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namely Labor Force Approach (or Current Status Approach), Usual Status Approach, and Gainful Worker Approach. The selection of an approach among these approaches to be applied to a survey or population censu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s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survey or the census and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a country.

In the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eries which have been taken almost every five years since its first round in 1925, a sample survey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as been adopted since the 1960 round of census. Even if the labor force approach continued to be applied to the census prior to 1980, the approach has been different from one round to another in recent rounds. It may be suggested that the labor force approach continue to be adopted for the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for the following reasons:

- 1) the proportion of seasonal workers to the total workers is very small,
- 2)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whose type of activity for a specific duration is different from that for one year is small,
- 3) the approach for the census should be the same as that for a variety of sample surveys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adopt the labor force approach, since the census functions as a population as well as a bench mark for those sample surveys,

- 4) an application of labor force approach will facilitate international comparisons since most of countries that conduct a population census adopt this approach,
- 5) the labor force approach can improve the reliability of results, thanks to its short reference period, etc.